

◆ 북미

- 美 보험협회, 자동차보험 인수시 신용평가 적용은 보험사 이익증대와 소비자 편익을 증대
- 2007 캐나다 연금시장: 시장규모는 소득수준보다 거주 인구수에 따라 결정

◆ 유럽

- 유럽지역 금융 감독체계 강화에 주목
- 영국, "무보증금 제도(No Deposit Scheme)"에 따른 신규 보험상품 출시

◆ 일본

- 일본 우체국, 생보사와 제휴를 통한 변액연금상품 판매개시
- 니혼생명, 戰後 처음으로 신계약보험료 기준 3위사로 전략

◆ 중국

- 중국, 2010년 수입보험료 규모 1조 위안 전망
- 중국 복건성, 보험분쟁 빠르면 10일 내 해결

◆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

【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美 보험협회, 자동차보험 인수시 신용평가 적용은 보험사 이익증대와 소비자 편익을 증대

- 미국 상호출자사로 구성된 보험협회(NAMIC: National Association of Mutual Insurance Companies)는 美하원 금융서비스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개인 신용등급평가 적용이 보험사의 보험인수 및 요율결정에 적절한 기준을 제공한다고 주장할 예정임.
-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개인 신용평가와 자동차보험 손해율 간에는 근거 있는 상관관계가 발견되었으며, 보험사는 이러한 신용평가의 적용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에게 보험을 제공해줄 수 있으며, 정확하고 객관적인 보험료 책정이 가능하고 보험계약자 대다수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함.
- 과거 사례를 볼 때 보험사 손실을 미리 예측해줄 수 있는 인수/요율결정 기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는 보험사의 보험담보 가능범위를 좁혔으며, 보험가격을 상승시켰음.
- 지역별손해율, 운전자 연령 등이 그 사례로 볼 수 있는데 과거에 보험사가 이들 정보를 보험인수시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험시장에서는 경쟁이 사라졌고, 결국 보험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주지하여야 할 것임.
- 한편, 신용평가등급은 보험인수시 유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이 아니며, 운전 사고 기록, 자동차 연령과 타입, 주차 주소지 등의 기준과 함께 적용될 자동차보험인수 판단기준이 될 것이라고 밝힘.
- 신용평가등급 적용이 인종차별을 낳을 것이라는 지적에 관해 美보험협회는 신용등급평가 적용과 인종·민족·소득수준 간 차별은 무관한 것으로서 많은 연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조사되고 있다고 반박함.
- 한편, 美보험감독자협회(NAIC)는 동 하원청문회에 출석하여 신용평가제

도입에 대한 각 주보험감독청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, 도입이 될 경우 인수결정에 유일한 판단기준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.

- 또한 NAIC는 신용평가제가 실질적으로 인종 간, 소득 간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지 여부도 연방정부가 심도 있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할 예정임.
- 현재까지 미국의 48개주는 그동안 보험인수시 개인 신용평가 등급 적용을 제한하여 왔음.

(Insurance Newsnet 5/21, NAIC 5/21)

□ 2007 캐나다 연금시장: 시장규모는 소득수준보다 거주 인구수에 따라 결정

- 美 생명보험마케팅센터(LIMRA)는 2007년 캐나다 연금시장을 지역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수준은 시장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면 거주 인구는 시장의 규모와 비례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함.
- 캐나다 온타리오주는 캐나다에서 인구규모가 가장 큰 지역으로서 2007년도 연금시장의 47%를 차지함.
- 퀘벡주는 소득수준 측면에서 석유관련 시설이 밀집한 알버타주 보다 낮으나 인구규모에 있어서 앞서는 관계로 두 번째 큰 연금시장을 형성함.

지역	2007 연금시장	인구	소득수준
온타리오주	47%	39%	\$64,500
퀘벡주	19%	23%	\$57,000
브리티쉬 컬럼비아주	13%	13%	\$58,500
알버타주	10%	11%	\$71,000
마니토바주	4%	4%	\$56,100

- 한편, 판매채널별 분석에 따르면 독립설계사 등이 캐나다 연금보험료의 절반이상을 수거한 것으로 나타남.
- 2006년과 같은 추세로 독립설계사 및 이들의 대리점이 전체시장의 54%를 차지하였고 전속설계사는 36%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해 11%p 감소함.
- LIMRA의 이번 조사는 전체 연금시장의 90%를 차지하는 13개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음.

(LIMRA 5/26)

【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유럽지역 금융 감독체계 강화에 주목

- 유럽위원회*(EC:European Commission)는 최근 유럽 금융시장의 혼란에 따른 금융서비스 감독기구에 대한 책임 강화에 주목하고 있다고 전함.

* 브뤼셀에 본사를 둔 유럽위원회(EC)는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의 상호동의에 의해 4년 임기로 임명되는 위원들로 구성된 독립 기구이며, 유럽 연합의 보편적 이익을 대변하고 있음.

- 내부시장서비스(Internal Market and Services) 총국의 국장인 Charlie McCreevy에 따르면 이러한 유럽의 금융혼란 위기는 현재 감독체계를 한 단계 성숙시켜야한다는 요구로 인식한다고 전함.

- 또한, 감독체계의 성격에 있어서는 실질적이면서도 점증적인 결과지향(result-oriented) 중심의 의안제출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임.

- 위원회에서는 유럽국가의 감독 및 안정성 대책(stability arrangement)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전제하에 은행을 비롯한 보험 및 연금운영을 감독하는 감독위원회의 역할을 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덧붙임.

- 또한, 비용측면에 있어서도 감독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끌어갈 수 있게 금융안전성을 모니터링 하는 방안도 요구된다고 전함.

- 본 내용과 관련해서 위원회는 올해 말까지 관련 내용에 해당하는 제안서(proposal)를 발표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음.

(Strategic RISK, 5/27)

□ 영국, “무보증금 제도(No Deposit Scheme)”에 따른 신규 보험상품 출시

- 임대부동산 거래*에 있어 "무보증제도(No Deposit Scheme)"의 신규 보험 상품이 출시됨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주택으로 이사할 때, 임차보증금이 증액 또는 차감되는 일로부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되었음.

* 영국은 주인이 자신의 집을 임대할 때(Letting) 임차인이 임대료(Rent)에 보증금(Deposit)을 선불로 내고 이사를 하게 되며, 보통 보증금은 1달 임대료를 내는 것이 정상이나 주인에 따라서 1.5~2달의 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요구하기도 함. 이 보증금은 계약 만료 시(보통 6, 1년 단위)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나 주인에 따라서 혹은 집의 상태에 따라서 보증금이 깎이게 됨.

- 영국의 임대사업 전문회사인 Paragon Advance는 무보증제도 도입에 따라 145파운드인 고정된 가격의 신규 보험상품을 구입함으로써 집주인이 보증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일 없이 임차인에 의해 발생한 임대주택의 파손이나 손상에 대해 보장을 받게 되었음.
 - Paragon Advance의 팀장인 Bryn Cole에 따르면, 최근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는 이 같은 손해에 대한 처리 비용을 요구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, 초기 임대비용 수준까지 보증금을 올리는 것도 힘들다는 분석임.
- 이 같은 무보증제도는 집주인이 임대기간 동안 임차인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청구할 필요도 없이 임대주택이 파손되거나 임차인이 수리의무에 대해 위반하는 등의 여러 상황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한 것임.
 - 또한,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소지가 있는 수리 의무에 관해서도 상호 동의하에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중재서비스 역할도 포함하고 있다고 전함.
- 이 같은 제도는 DAS Legal Expenses에 의해, 집주인에게 발생하는 손해의 최고 1달 임대비용까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으며, 필요하다면 법적비용도 최고 5만 파운드까지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.
 - DAS의 기업금융 담당인 Alex Manning은 이러한 제도가 임대거래에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획기적인 해결방안이라며, 집주인에게 본인 자산에 대한 보호 장치를 확보하고, 임차인에게 추가비용 없이 이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함.

(Insurance Times, 5/28)

【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일본 우체국, 생보사와 제휴를 통한 변액연금상품 판매개시

- 일본 우정그룹* 산하은행과 우체국 회사에서 민영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의 위탁 판매가 시작.
 - * 우정사업 민영화 추진 이후 지주회사로 출범
 - 우체국은 82개 직영 점포, 우체국회사는 79개의 우체국에서 생명보험회사의 변액연금을 판매
 - 6월 1일부터는 81개 지점에서 간단한 정기보험을 판매.
- 방카슈랑스에 이어 거대한 판매망을 보유하는 우정그룹과 판매위탁을 체결하고 업무지원을 약속하는 등 생보사들 간의 경쟁이 시작됨.
 - 대형생보사인 니혼생명만은 간이보험생명과 상품개발 등에서 업무 제휴를 추진하여 전폭적인 업무를 지원
 - 스미토모생명은 우정그룹 각사의 판매 지원을 실시하는 전문 담당자를 전국 78개 지사에 배치하고, 은행 등의 판매 담당자에게 상품에 관한 이해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연수나 업무 지원
 - 알리코재팬은 금융기관을 취급하는 금융 법인본부 내에 약 60명의 우정그룹 전문담당자를 배치하고 방카슈랑스의 노하우를 살려 판매 지원을 제공
 - 미츠이스미토모해상 및 매트라이프생명도 우정그룹에의 지원을 담당하는 전임 부서를 설치하여 전문 담당자가 판매 연수를 실시
 - AFLAC는 사무자동화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하고 본사내의 관련 담당부서를 출범
- 우체국은 2009년 1월 하순을 목표로 전 직영점에서 생명보험회사의 상품 취급을 시작할 예정으로 상품을 제공하는 생명보험회사들의 적극적 판매제휴 체제가 향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(FujiSankei Business 5/30)

□ 니혼생명, 戰後 처음으로 신계약보험료 기준 3위사로 전락

- 일본의 생명보험업계가 일본에서 영업 중인 상위 13개 생보사들의 영업실적을 집계한 결과 내국계 생보사들의 수입보험료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.
- 수년전부터 불거진 지급 보험금의 부당 누락 또는 미지급 사태의 발생으로 소비자들이 보험에 대한 믿음이 떨어지면서 수입보험료 실적이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.
- 2008년도 수입보험료 실적은 외국계를 제외한 내국계 상위 9개사가 전년대비 3.1% 감소한 17조 6337억엔으로 나타남. 지난 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한 추세로서 이차위험률차비차익의 합산 이익에 해당하는 기초이익이 8개사에서 감소함.
- 신계약보험료 실적을 볼 때 사망보험에서 신계약 금액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. 특히 니혼(日本)생명보험은 신계약 금액이 전년대비 43.7% 감소한 6조 4506억엔으로 다이이치(第一)생명보험, 스미토모(住友)생명보험을 밀돌아 戰後 처음으로 3위로 전락함.
- 수입보험료는 9개 생보사 중에서 다이이치(第一)생명보험 등 5개사가 감소하였고 니혼생명은 개인보험의 정체현상을 단체시장에서 극복하여 전년대비 0.7% 증가함. 기초이익은 9개사 합계로 전년대비 11.9% 감소한 2조 1185억엔으로 나타남. 자산운용이율이 고객에게 약정한 예정이율을 하회할 때 발생하는 역마진은 니혼생명과 다이이치생명 등이 개선됨. 신계약의 침체와 보험금 부당 미지급 또는 누락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출한 사업비 증가가 기초이익을 감소시키는 영향으로 작용함.
- 한편, AFLAC 등 외국계 4개사의 수입보험료는 전년대비 5.1% 증가한 5조 1276억엔으로 나타남.

(마이니치신문 5/31)

【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】

□ 중국, 2010년 수입보험료 규모 1조 위안 전망

- 지난 5월 29일 중국 상하이(上海)에서 거행된 ‘2008년 중국보험산업 서밋’에 참가한 중국보감위 정책연구실 보험이론연구처 처장 슈까오용(舒高勇)은 중국 보험시장 규모가 오는 2010년에 1조 위안(한화 약 150조원)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하였음.
- 최근 수년 동안 중국 보험시장은 두 자리 수의 안정적 성장을 거듭해 왔으며, 특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은 연평균 20%가 넘는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음.
- 보험자산 규모가 2002년 말 6천억 위안에서 지난해 2조 9천억 위안으로 5배 가까이 증가한 것도 중국 보험시장 발전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으나, 절대시장 규모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보험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수준임.
- 지난 2007년말 기준 중국 보험시장의 연간 수입보험료 규모는 7,036억 위안(약 1,000억불)으로 국민 1인당 지출보험료가 600위안(약 87불)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, 이는 보험선진국의 10%~15% 수준에 해당함.
- 슈까오용은 "보험선진국과의 격차는 곧 중국 보험시장의 발전 잠재력을 의미한다"며 오는 2010년 수입보험료 1조 위안, 보험침투도 4%, 보험밀도 750위안(100불 이상) 등에 이르게 될 것이며, 보험회사의 자산규모도 5조 위안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음.
- 하지만 국내외 보험전문가들은 중국의 보험시장이 덩치만 키워서는 곤란하며 시장규모에 맞는 서비스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며, 중국에서는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보험서비스의 낙후성이 끊임없이 지적돼 왔음.

(북경상보, 5/28)

□ 중국 복건성, 보험분쟁 빠르면 10일 내 해결

- 중국 푸젠성(福建省)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해 10일 이내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른바 ‘보험분쟁 중재제도’가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.
- 이는 분쟁에 대한 중재의 일환으로 주로 소비자 의견에 무게를 두고 이루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남.
- 푸젠성 보험업협회에 따르면 5월 30일을 기해 보험계약 분쟁에 대한 신속 처리 시스템을 가동하는 데 피보험자 혹은 수익자가 보험계약 내용이나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푸젠성 보험업협회 인민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.
- 중재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며, 빠르면 10일 늦어도 20일 이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임.
- 푸젠성 보험업협회는 중재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보험업계 내외를 막론하고 중재인력을 초빙하여 분쟁조정 업무에 전적으로 투입한다는 계획임.
- 이와 함께 언론매체, 소비자위원회, 보험감독국 등으로부터 중재사건 처리에 대한 감독기능을 담당할 인력을 초빙한다는 계획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- 한편, 중재위원회는 소비자로부터 어떠한 비용도 수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며, 중재대상은 자연인으로 과거 중재 혹은 소송사실이 없어야 할 뿐만 아니라, 손해보험은 20만 위안 미만, 생명보험은 10만 위안 미만 건에 대해서만 접수한다고 전함.

(동남패보, 5/30)

【 Financial Key Indicators 】

구분		07년말	08.5.23(금)	08.5.30(금)	전주대비
금리 (%)	韓 국고채(3년)	5.74	5.39	5.46	0.07
	美 10년국채	4.03	4.57	4.72	0.15
	英 10년국채	4.51	4.92	4.94	0.02
	日 10년국채	1.51	1.74	1.76	0.02
주가	韓 KOSPI	1,897.13	1827.94	1852.02	1.32%
	韓 KOSDAQ	704.23	649	652.8	0.59%
	美 DJIA	13,264.82	12479.63	12638.32	1.27%
	美 Nasdaq	2,652.28	2444.67	2522.66	3.19%
	英 FTSE100	6,456.90	6087.3	6053.5	-0.56%
	獨 DAX30	8,067.32	6944.05	7096.79	2.20%
	佛 CAC40	5,614.08	4933.77	5014.28	1.63%
	日 Nikkei225	15,307.78	14012.2	14338.54	2.33%
	中 상해종합	5,261.56	3473.09	3433.35	-1.14%
	대만 가권	8,506.28	8834.73	8619.08	-2.44%
	홍콩 항셱	27,812.65	24714.07	24533.12	-0.73%
	환율				
	원/달러	938.2	1046.9	1031.4	-15.50
	원/100엔	833.33	1002.64	977.03	-25.61
	엔/달러	112.58	103.28	105.56	2.28
	달러/유로	1.4722	1.5769	1.5509	-0.03
	위안/달러	7.3041	6.9435	6.9379	-0.01